세계명작 바꿔쓰기

역사책을 읽을 때면 흔히들 "만약"이란 가정법의 유혹에 빠져들곤 한다. "만약,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하지 않고 애초의 명대로 중국에 진격했더라면" "만약, 김구가 이승만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더라면" 하는 식이다.

이같은 가정법은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의 유혹이 된다. 역사에서의 만약이 사실의 문제인데 반해 문학에서의 만약이 상상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부담없이 즐거운 유혹이 될 수도 있다. 이른바 명작으로 이름난 책이라면 더욱 재미있다. 극중인물의 운명과 사건의 전개를 나름대로 새로 엮어 보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이와 함께 명작의 권위를 단한번에 회화화시키는 일종의 불경스런 즐거움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몇년전 미국의 한 잡지가 이색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줄리언 반즈 등 현대 미국문단에서 명성을 떨치는 유명작가들로 하여금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호머의 「오딧세이아」, 나보코프의 「로리타」,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같은 세계명작들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쓰게 한 것이다. 어차피 다소는 장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세계명작 해피엔딩으로 바꿔쓰기'를 다음에 소개한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대신, 정신을 차려서 각자 제 갈 길을 떠난다. 즉, 안토니우스는 자기 아내인 옥타비아에게로 되돌아가서, 그녀에게 다시는 해외원정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반면 클레오파트라는 '역시 남자들이란 더 이상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위대한 조국 이집트만이 영원불멸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국가와 경제적 부흥에 전심전력한다. 결국 관광사업이 가장 유망하다는 결론을 내린 클레오파트라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최초의 독사 농장을 개설하게 된다. (줄리언 반즈)

「오딧세이아」
호머

오딧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돌아올 줄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버린다. 그녀는 몰려드는 구혼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매일 밤 잘라 버리던 옷감을 결국 완성하게 되고, 부유한 사업가를 남편으로 선택, 전남편 오딧세우스의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방직센터를 세워 날로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케이트 사이먼)

「로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원전에서는 로리타가 1952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는 끝부분을 바꾸고 싶다. 즉, 로리타는 결혼해서 여자아기를 출산한다. 그녀의 젊은 남편은 출산의 기쁨에 흥분하다가 결국 죽고 만다. 로리타는 잠시 슬픔에 젖지만, 아기를 데리고 북부 캘리포니아로 거주지를 옮겨, 가명을 사용하면서 새생활을 시작한다. 이 곳에서 그녀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심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논문주제는 '근친상간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그녀는 논문 지도교수였던 블라디미르 투스와 재혼하고, 닥터 루스라는 이름으로 라디오와 TV에서 性문제 상담 전문가로 대활약을 하게 된다.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프라이데이와 함께 생활한 지도 10년 세월이 지났다. 프라이데이는 주인에게 봉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크루소는 마지못해 승락하지만, 프라이데이가 새로운 고용조건을 들고 나오자 난색을 표명한다. 앞으로 또다른 조난자가 올 경우를 대비, 자유계약조항을 제시했던 것. 크루소는 백인조난자치고 원주민에게 자유계약권을 보장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사분규는 별다른 타결없이 계속된다. 프라이데이는 모닥불 피우기를 거부하는 등 태업에 들어간다. 크루소는 또다른 섬으로 거주지를 옮겨 '11월23일'이라는 원주민을 고용하지만, 이 원주민은 영 일이 서투르다. 그러나 크루소는 계속 고집을 피운다.

결국 마음이 누그러진 프라이데이는 크루소를 다시 돌보게 되지만, 섬의 표류생활은 이제 예전같지 않아진다. (주디 블럼)

「보바리 부인」
귀스타프 플로베르

엠마 보봐리는 독약을 마신다. 그러난 그녀는 죽는 대신 3일 동안 잠을 자면서 환상적인 꿈을 꾼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인생의 의미를 새로이 깨닫게 되고, 고리타분하고 우유부단한 그녀의 남편 샤를르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자각 덕분에, 그녀는 취직을 해서 보봐리家를 빚더미로부터 구해낸다. 엠마는 화장품 외판원을 하면서 꿋꿋하게 새로운 삶을 영위해나가는 한편, 마약중독청소년을 위한 자선봉사활동에 뛰어든다. (타마 노비츠)

출판저널

통권 제156호 / 1994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고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원제:물병자리 시대의 공모
매릴린 퍼거슨
김용주 옮김/값 9,800원

세기말의 엄청난 대변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새로운 시대(New Age)'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세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엄청난 탈바꿈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온 세계, 전 분야에서 소리없이,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도도한 의식 혁명의 물결—모든 낡은 바탕을 허물고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이룩될 영적 각성의 시대를 예고한다!

영적 각성의 시대를 예고하는
탁월한 기념비적 대저작!

다가오는 시대는 영적 각성의 시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탁월한 기념비적 대저작! 정치·경제·학문·종교·예술·교육… 20세기말 인류 문명 전반에 걸쳐 몰아닥친 영적 각성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조망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과연 보수 기독교인의 말대로 사탄의 선택인가, 선구자들의 말대로 인류를 암흑에서 건져낼 정신개벽인가?

새로운세계의열림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간관을 읽는다

1. 생명의 농업
후꾸오까 마사노부/값 6,500원
2. 마음의 의학
칼 사이몬튼 외 지음/값 6,500원
3. 녹색정치
스프레트낙·카프라 공저/값 7,000원
4. 직관의 경영
다마 멘탈 비즈니스 연구소/값 3,500원
5.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올리버 포피노 외 지음/값 6,000원